

박/동/하/수/필/집

# 때 늦은 후회

오늘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은 영원속의  
오늘이요, 현재는 영원속의 현재이다. 우리는 오늘을 마  
껴야 한다. 인생에선 무엇보다 마껴야 할것은 오늘이다.  
돈을 주고 살수 없는 오늘.



박/동/하/수/필/집

# 때 늦은 후회



홍콩진출판사  
조선인출판사

图书在版编目 ( CIP ) 数据

迟来的后悔: 朝鲜文 / 朴东河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8

ISBN 978-7-5389-1458-0

I. 迟… II. 朴…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38735 号

书 名/ 迟来的后悔  
著 者/ 朴东河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exmz@126.com  
责任编辑/ 林承焕  
责任校对/ 徐 燕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850mm × 1168mm 1/32  
印 张/ 5.5  
字 数/ 66 千字  
版 次/ 2007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978-7-5389-1458-0 ( 民文 )  
定 价/ 13.00 元

길고도 짧은 인생길에 관조의 미학을 짓씹으면서 달관의 경지를 바라보는 한 수수한 보통공민의 멋진 카리스마!

이제 박동하씨의 안경 낀 눈에 비치는 사회의 여러가지 만화상은 바야흐로 질서를 잡아서게 될 것인가...

세상에 대한 연연한 미련과 동반하여 삶에 대한 끈덕진 추구, 그것이 낳은것이 박동하씨의 《때늦은 후회》이다. 하기는 누구나 세상의 마감을 맞이할 때엔 참회를 하게 되는것이 레상사던가!

계절의 장단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멋들어진 춤가락을 뽑아대는 박동하씨의 《때늦은 후회》는 오늘 하루를 뛰어넘어 래일의 찬란함으로 에너지를 뽐쳐가리라.

## 차 례

### 제1부 연변의 5월

- 신라의 도읍지를 찾아서/ 3
- 연변의 5월/ 7
- 20년후에 찾아간 청산/ 11
- 일범풍순화(一帆风顺花)/ 14
- 부러진 소나무/ 17
- 끈기와 포기(抛弃)/ 19
- 계절의 향기/ 23

### 제2부 인생의 어려운 시험

- 춤은 분수에 맞게/ 29
-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32
- 회피할수 없는 교육/ 35
- 잃었던 돈지갑/ 38
- 인생의 어려운 시험/ 41
- 힘/ 44

물/ 47

이름을 불러주자/ 51

### 제3부 안해의 잔소리

싸우며 자라는 형제/ 57

고부는 한배를 탄 가족/ 60

길에 대한 생각/ 63

웃음소리/ 66

말은 곱고 부드럽게/ 70

부부에 대한 생각/ 73

안해의 잔소리/ 77

로년시기의 기쁨/ 81

불행한 로년의 고독/ 85

늘그막사랑/ 89

### 제4부 때 늦은 후회

악수/ 95

일이 사랑/ 98

남을 위하는 일이 내 일/ 102

인생소감/ 106

목욕탕에서/ 113

전화를 걸고서/ 116

선생님의 미소/ 120

선생님의 손길/ 124

때 늦은 후회/ 128

## 제5부 느낌의 계절

오늘에 인생을 걸자/ 135

코의 억울함을 말하다/ 137

양옥집은 들어가건만/ 141

학교는 독서의 진지가 되어야 한다/ 145

가위질/ 149

그림자/ 152

인생에는 은퇴가 없어야 한다/ 155

작은 꽃들/ 158

향기있는 꽃/ 161

## 제1부 연변의 5월



# 신라의 도읍지를 찾아서

내가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기간에 제주도를 포함하여 여러곳의 명승지를 돌아보았지만 오늘에 와서 남은것이란 《경치가 아름답다》거나 《신기하다》는 대체적인 인상뿐 별로 남은것이 없다. 이름 있는 명승지들은 모두 경치가 아름답거나 신기한 특색이 있는것만큼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기때문에 결국 머리에 남아있는것이 얼마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서라벌 신라의 옛 서울 경주를 돌아본 인상은 몇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머리에 생생히 떠오른다.

경주는 신라가 건립되어 멸망할 때까지 장장 천년의 옛 서울로서 신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 56대 왕릉중 대부분이 경주에 있어 경주야말로 왕릉의 도시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경주는 석굴암, 다보탑, 봉덕종 등 신라3보를 비롯한 문물이 집중되어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경주를 돌아보노라면 천년왕국의 영웅호걸과 신라인들의 지혜를 보는듯싶다.

모양이 아름다우며 결구가 복잡, 기이하며 그 솜씨가 치밀, 정교하여 돌을 가지고 어찌면 저렇게 만들었을까 생각되는 불국사의 다보탑, 성덕왕(聖德王)을 위해 그 손자 경덕왕(景德王), 중손자 혜공왕(惠恭王) 두 부자(父子)가 만든 봉덕종(에밀레종)은 무게가 20톤으로서 규모가 방대하고 표면조각이 정교하여 고대유물중의 귀중한 보배임이 틀림없다. 석굴암은 완전한 돌굴로서 천장과 벽이 모두 화강암석재로 되었는데 벽에 있는 불상들은 모두 화강암이고 암자의 문이 동으로 향해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있는가 하면 아침해, 저녁달이 번갈아 빛을 주고 뜰아래 남쪽에 한줄기 맑은 물이 새여 떨어져 맑고 신선하기 그지없다. 모든것이 돌로써 정조된것이니 실로 신라예술의 위대함을 폐부로 느끼게 한다.

경주를 거닐다보면 어느덧 천여년전의 옛사람들과 더불어 유람하는듯하다.

송화산중턱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둥근 고분은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묘이다.

이 묘는 직경이 30미터나 되는 큰 무덤으로서 봉분아래는 병풍처럼 관석으로 호석을 설치하였고 호석중간에는 무기를 든 12지신상을 배치하였다. 호석밖으로는 여러개의 돌기둥을 세워 란간을 둘러쌌다.

김유신은 지금 적막한 산에 청풍명월로 동무삼아 조용히 누워있다.

김유신장군의 묘외에 또 감회가 깊고 인상적인것은 오릉과 포석정이다.

경주 배동에 있는 오릉은 주위에 소나무가 우거지고 시조왕, 알영왕비(閔英王妃), 남해왕(南海王), 유리왕(儒理王), 파사왕(婆娑王) 다섯 룡이 둥그렇게 서로 이어져있다. 룡마다 어찌나 큰지 사람 열둘이 잔디로 씌워져있는 봉분우에서 잡초를 뽑는데 봉분꼭대기의 동쪽 한쪽귀퉁이를 차지 하나마나 했으니 실로 봉분 하나의 크기가 작은 산봉우리만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음방초가 우거진 곳에 앉아 오릉을 바라보노라니 마음이 저절로 숭엄해진다.

오릉에서 남으로 3리가량 나아가면 곧 포석정이다.

여기는 신라왕실의 별궁으로 력대임금이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지금 정자 등 건물이 사라지고 전복같이 생긴 석조구조물만 남아있다. 이곳은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잔을 나누며 시를 읊었던 놀이터이다. 경

애왕 4년(927년)에 왕이 여기에서 후백제 견훤의 습격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마친, 신라력사에 치욕을 남긴 곳이기도 하다. 결국 신라는 몇년후 망하고말았다.

오릉을 보고 그곳으로부터 3리 떨어진 곳에서 천년고국의 최후의 비극장소인 포석정을 보니 천년력사의 홍망성쇠가 이 3리사이에 있어 광음이 여류하여 천년도 촌음이요, 홍망성쇠도 여반장이라는감이 들었다.

천년 옛 서울의 왕궁비전터에 봄풀만 년년이 푸르고 쓸쓸한 귀뚜라미소리만 들리니 옛날의 영화를 어디서 찾아볼것인가.

저녁에 시가를 산보하면서 무심히 하늘을 보니 둥근 명월은 분명히 신라의 옛 달이다. 천년력사를 가진 신라가 멸망한지 이제 천년 남짓한 오늘 신라의 도읍지에서 신라의 옛 달을 보니 서글픔이 더욱 간절한데 온 시가가 불야성을 이루고있으니 잠시 나의 심신을 혼란케 한다.

이제 다시 천년이 지나면 신라의 혼령이 스배여있는 경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세인들을 놀라게 할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 연변의 5월

연변의 5월은 봄과 초여름이 만나는 시기이며 대자연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온갖 생령이 활력으로 박차를 가하는 시기이다.

진달래꽃, 사과꽃, 배꽃, 함박꽃, 라이라크꽃들이 울긋불긋 산야를 수놓으며 활짝 피었다가 뒤늦게 연록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아름다움을 그 무엇과 비길수 있겠는가.

계곡을 울리며 흐르는 물소리에 들뜬은 기지개를 펴고 포근한 감로수에 온 산야가 푸르려간다. 깨끗하고 명랑한 하늘에서는 온갖 새들이 날아예면서 아름답게 지저귀고 싱그러운 풀내음 풍기는 숲속에서는 노루, 사슴떼들이 경충경충 뛰는 다. 꽃을 찾아 나비들이 춤추고 꿀벌들이 분주히

드나든다. 기름진 들에는 봄파종이 한창이고 유유히 흐르는 강에는 낚시꾼들이 널려있다.

아빠트정원에는 별쪼임하는 로인네들이 구수한 옛이야기에 웃음꽃 피우고 유치원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재잘거리며 마음껏 뛰논다.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온다. 강에는 천렵놀이요, 들에는 들놀이요, 산에는 등산놀이로 성황을 이루고있다.

연길공원은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고있고 그네뛰기, 농악무 등 민속놀이도 한창이다.

5월은 무엇보다 혼자 여행하기 좋은 달이다.

새벽잠에서 깨어나 가방 하나를 들고 흔들리는 빠스에 몸을 싣는다. 차창밖을 내다보면 실개천을 끼고 좁은 로송령협곡을 빠져나오다가 펼쳐지는 푸른 들판이 안겨오고 깊은 사냇에서 깨여움찔움찔 일어서는 산맥을 배경으로 푸른 새옷을 떨쳐입은 숲들이 반갑게 손짓한다.

만천성에서 배놀이 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백두산유람길, 구수한 흙냄새를 맡으면서 아득히 펼쳐진 평강벌을 지나가는 멋도 멋이려니와 늘찬 하발령을 넘으면서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인삼 등 약밭들을 《하나, 둘...》하면서 세여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빠스가 방향을 바꾸어 산굽이를 에돌아 좁은 협곡을 내쳐 오르다보면 주위에는 홍송, 백송, 미

인송 등 락락장송들이 칠칠히 늘어서있고 기암절벽이 치솟았는데 하면 협곡사이로 쏟아져내려오는 물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기도 한다.

차에서 내려 도보로 한참 오르다보면 천길벼랑에서 폭포가 쏟아져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백두산폭포이다. 지축을 울리는 폭포소리와 부서지는 물보라는 장관을 이룬다.

가파로운 산길을 뚫어오르면 천하의 명승지 백두산천지가 한눈에 안겨온다. 아직 쌀쌀한 랭기가 완전히 가셔지지는 않았지만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기에는 제격이었고 앞이 확 트인 넓고 푸른 천지물을 보니 마음이 확 열리면서 속세를 떠나 별유천지에 온듯싶다.

백두천지 올라서서 사위를 둘러보니  
천봉은 첩첩한데 만학은 연무로다  
천궁이 이 곳이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아무리 무뚝뚝한 놈도 펼쳐진 절경을 보고서  
는 이러루한 시구쫘은 스스로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연변의 5월이다. 이러한 5월을  
갖고있는 연변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일년내내 빙설로 뒤덮여있는 남극대륙동토는  
그만두고라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사막지대나 사  
철 열도가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열대지방과

령하 60도까지 내려가는 동북부 씨비리 등 곳을  
생각해보면 춘하추동 사계절이 분명히 갖추어져있  
고 특히 아름다운 5월을 갖고있는 연변인민은 얼  
마나 복받고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천당이나 극락세계가 별것이겠는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열대지방에서 혹은 북극이나 씨비리  
동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5월에 별안간 연변에 와  
본다면 아마 이곳이 바로 천당이거나 극락세계라  
고 할것이다.

연변의 5월은 그야말로 찬란한 계절이요, 생  
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요, 환락으로 들끓는 계절이  
틀림없다.